

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(제164-2호)

여론속의 여輿론論

별난리서치: 점(占), 신년운세에 대한 인식조사

2022. 01. 19.

담당자 이동한 차장
전화 | 02-3014-1060
e-mail | dhlee@hrc.co.kr

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

-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.
-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.
-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.
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,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.
- 정가지표-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.
- 정가지표는 국가, 사회,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.
-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.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,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.
-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.

운영책임

이동한 차장

전화 | 02-3014-1060

e-mail | dhlee@hrc.co.kr

연구진

정한울 전문위원

전화 | 02-3014-1057

e-mail | hw.jeong@hrc.co.kr

이소연 연구원

전화 | 02-3014-1062

e-mail | lee.sy@hrc.co.kr

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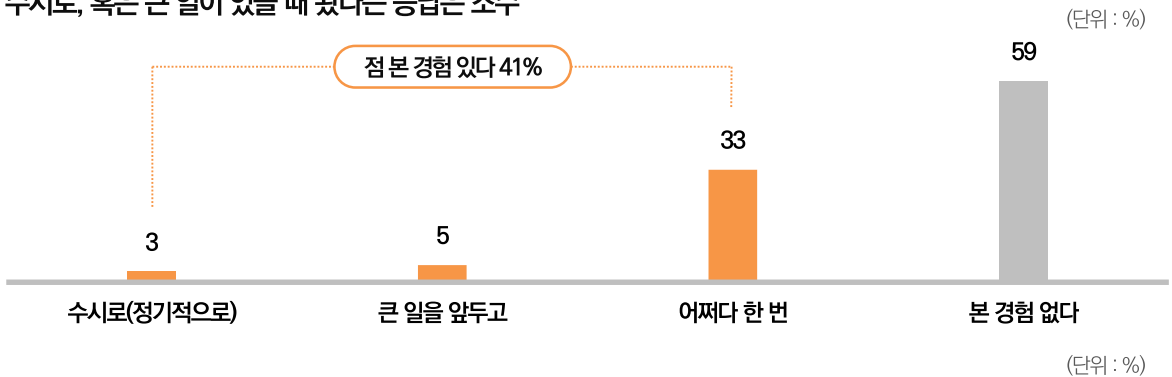
점(占),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까?

최근 5년 사이 점을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41%
수시로, 혹은 큰 일이 있을 때 봤다는 응답은 소수

2017년 이후 한 번이라도 사주, 타로, 관상, 신점 등 점(占)을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41%였다. 남자(35%)보다는 여자(48%)가 점을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높았고, 60세 이상(29%)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최소 40% 이상이 점을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. 개신교 신자와 천주교 신자 중에서는 2017년 이후 점을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각각 23%, 39%였으나 불교 신자 중에서는 62%가 점을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해 차이를 보였다.

다만 수시로(정기적으로), 큰 일을 앞두고 점을 봤다는 응답은 각각 3%, 5%에 그쳤고, 어쩌다 한 번 봤다는 응답이 33%로 가장 높았다. 일상생활에서 목적의식을 갖고 종종 점을 보는 것이 아닌, 우연한 계기를 통해 일회성으로 점을 보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.

최근 5년 사이 점을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41%
 수시로, 혹은 큰 일이 있을 때 봤다는 응답은 소수



| | 사례수 (명) | 수시로 (정기적으로) | 큰 일을 앞두고 | 어쩌다 한 번 | 본 경험 있다 | 본 경험 없다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■ 전체 ■ | (1,000) | 3 | 5 | 33 | 41 | 59 |
| 성별 | | | | | | |
| 남자 | (497) | 3 | 4 | 27 | 35 | 65 |
| 여자 | (503) | 4 | 5 | 40 | 48 | 52 |
| 연령 | | | | | | |
| 18~29세 | (173) | 6 | 9 | 34 | 49 | 51 |
| 30~39세 | (152) | 6 | 4 | 44 | 54 | 46 |
| 40~49세 | (184) | 4 | 3 | 38 | 45 | 55 |
| 50~59세 | (195) | 1 | 5 | 33 | 40 | 60 |
| 60세이상 | (296) | 2 | 3 | 24 | 29 | 71 |

| | 사례수 (명) | 수시로 (정기적으로) | 큰 일을 앞두고 | 어쩌다 한 번 | 본 경험 있다 | 본 경험 없다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■ 전체 ■ | (1,000) | 3 | 5 | 33 | 41 | 59 |
| 종교 | | | | | | |
| 개신교 | (204) | 2 | 2 | 19 | 23 | 77 |
| 천주교 | (107) | 4 | 5 | 30 | 39 | 61 |
| 불교 | (198) | 6 | 7 | 49 | 62 | 38 |
| 다른 종교 | (23) | 0 | 0 | 18 | 18 | 82 |
| 종교 없음 | (469) | 3 | 5 | 34 | 42 | 58 |

질문: 최근 5년 사이(2017년 이후), 점(占, 여러 방법으로 미래 운수나 길흉을 미리 판단하는 일, 사주, 타로, 관상, 신점 등)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? 있다면,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?

응답자 수: 1,000명

조사기간: 2022. 01. 07 ~ 1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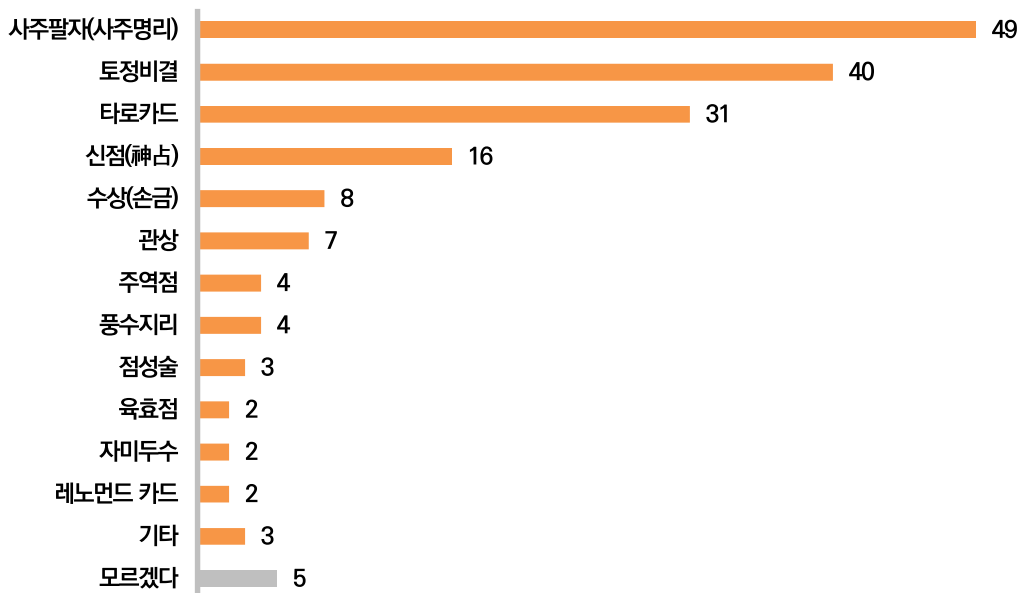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(hrcopinon.co.kr)

최근 5년 사이 점을 본 경험 있는 응답자, 사주팔자, 토정비결, 타로카드 순으로 본 경험 있다고 답해

최근 5년 사이 점을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게, 어떤 종류의 점을 본 경험이 있는지 물었다. 사주팔자(사주명리)를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9%로 가장 높았고, 토정비결(40%), 타로카드(31%), 신점(神占, 16%) 등의 순이었다. 특히 최근 5년 사이 점을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20대 중에서는 타로카드 점을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55%로 가장 높았다

최근 5년 사이 점을 본 경험 있는 응답자, 사주팔자, 토정비결, 타로카드 순으로 본 경험 있다고 답해

(단위 : %)



질문: 다음은 다양한 점(占)의 종류입니다. 최근 5년 사이(2017년 이후), 어떤 종류의 점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?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

비고: 복수응답

응답자 수: 2017년 이후 점을 한 번이라도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 413명

조사기간: 2022. 01. 07 ~ 10
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(hrcopinion.co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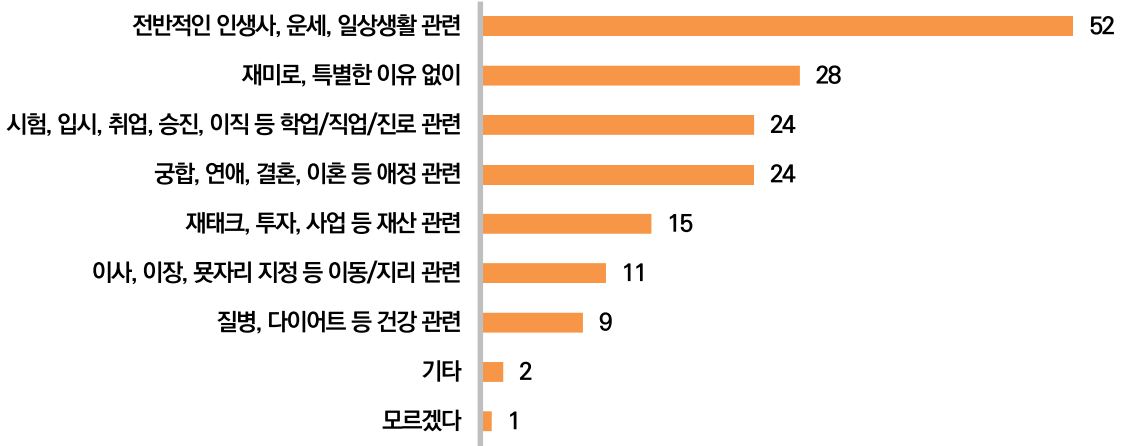
점을 본 이유, 전반적인 인생사나 운세, 일상생활 관련 52%

최근 5년 사이 점을 본 이유로는, '전반적인 인생사, 운세, 일상생활 관련' 이유 때문이란 응답이 52%로 가장 높았다. 이어서 '재미로, 특별한 이유 없이(28%)', '시험, 입시, 취업, 승진, 이직 등 학업/직업/진로 관련(24%)', '궁합, 연애, 결혼, 이혼 등 애정 관련(24%)' 등이 뒤를 이었다.

연령대와 관계없이 전반적인 인생사, 운세, 일상생활 관련 이유로 점을 보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데 연령대가 낮을수록 학업/직업/진로 관련 이유와 애정 관련 이유 때문에 점을 보았다는 응답이 높았다.

점을 본 이유, 전반적인 인생사나 운세, 일상생활 관련 52%

(단위 : %)



(단위 : %)

| | 사례수 (명) | 전반적인 인생사, 운세, 일상생활 관련 | 재미로, 특별한 이유 없이 | 시험, 입시, 취업, 승진, 이직 등 학업/직업/ 진로 관련 | 궁합, 연애, 결혼, 이혼 등 애정 관련 | 재테크, 투자, 사업 등 재산 관련 | 이사, 이장, 못자리 지정 등 이동/지리 관련 | 질병, 다이어트 등 건강 관련 | 기타 | 모르겠다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■ 전체 ■ | (413) | 52 | 28 | 24 | 24 | 15 | 11 | 9 | 2 | 1 |
| 성별 | | | | | | | | | | |
| 남자 | (172) | 45 | 29 | 23 | 25 | 17 | 7 | 12 | 2 | 2 |
| 여자 | (242) | 57 | 28 | 24 | 22 | 13 | 13 | 6 | 2 | 1 |
| 연령 | | | | | | | | | | |
| 18-29세 | (84) | 47 | 35 | 34 | 40 | 10 | 12 | 9 | 1 | 0 |
| 30-39세 | (83) | 60 | 25 | 27 | 32 | 20 | 8 | 8 | 1 | 2 |
| 40-49세 | (82) | 55 | 28 | 28 | 11 | 18 | 15 | 6 | 2 | 1 |
| 50-59세 | (77) | 52 | 27 | 18 | 18 | 15 | 10 | 8 | 4 | 1 |
| 60세이상 | (87) | 48 | 26 | 13 | 17 | 12 | 8 | 11 | 1 | 2 |

질문: 점(占)을 보신 적이 있다면,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?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

비고: 복수응답

응답자 수: 2017년 이후 점을 한 번이라도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 413명

조사기간: 2022. 01. 07 ~ 10
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(hrcopinion.co.kr)

2

점(占)에 대한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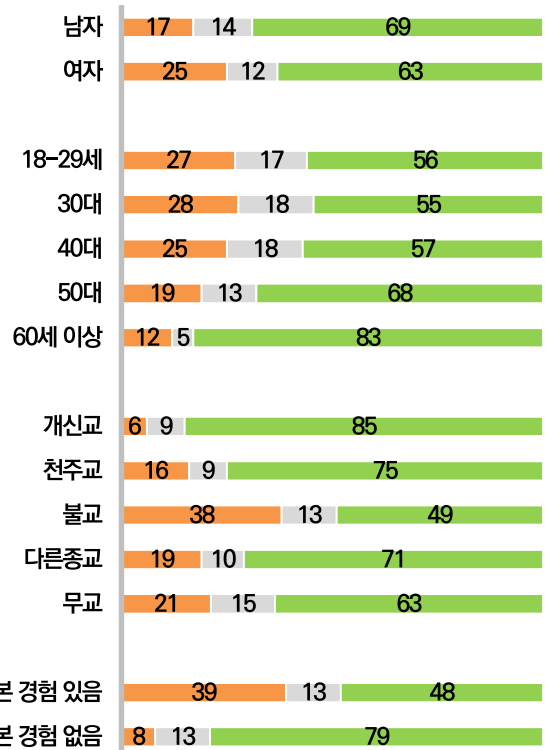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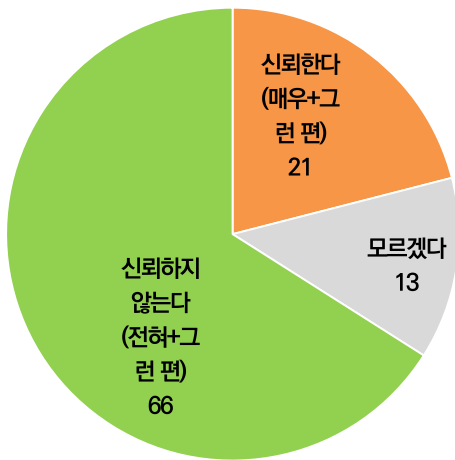
점을 신뢰하지 않는다 66%, 신뢰한다 21% 연령대가 높을수록 불신 강해져

점에 대한 신뢰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. 전체 응답자의 66%가 점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해, 신뢰한다는 응답(21%)보다 3배 이상 높았다.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점을 믿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았는데, 50대에서는 68%, 60세 이상에서는 83%가 점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. 개신교 신자의 85%, 천주교 신자의 75%가 점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, 불교 신자 중에서는 49%가 점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해 상대적으로 낮았다. 최근 5년 사이 점을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에서도 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(48%)이 신뢰한다는 응답(39%)보다 높았다.

점을 신뢰하지 않는다 66%, 신뢰한다 21%
연령대가 높을수록 불신 강해져

(단위 : %)

(단위 : %)



질문: 점(占)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?

응답자 수: 1,000명

조사기간: 2022. 01. 07 ~ 10
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(hrcopinion.co.kr)

점은 근거없는 미신이다 51%, 미신으로 보기 어렵다 30% 최근 5년간 점을 한 번이라도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0%가 ‘미신으로 보기 어렵다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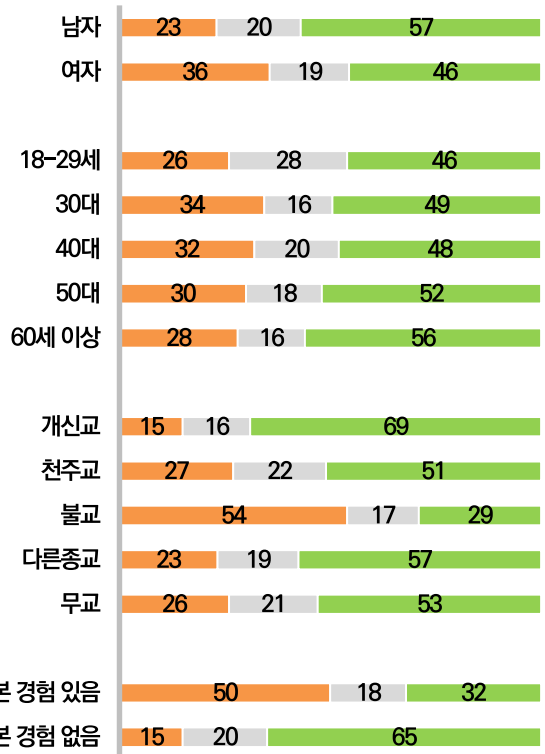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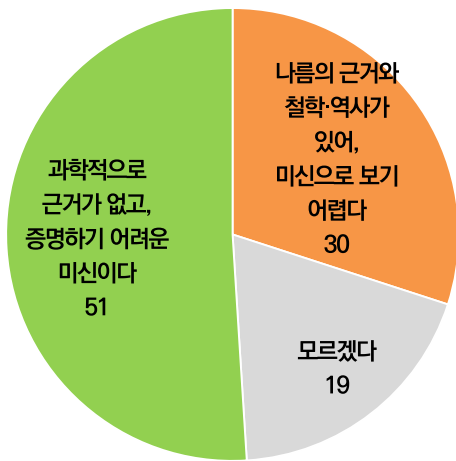
점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낮은 가운데, 점을 ‘과학적으로 근거가 없고, 증명하기 어려운 미신’ 이라고 생각하는 응답 또한 51%로 ‘나름의 근거와 철학 역사가 있어 미신으로 보기 어렵다’는 응답(30%)보다 21%포인트 높았다.

성별이나 연령대와 관계없이 점을 근거없는 미신이라고 보는 응답이 높았다. 다만, 최근 5년 사이 점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 응답자 중에서는 50%가 미신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해, 미신이라는 응답(32%)보다 높았다. 최근 5년 사이 점을 본 경험이 없는 응답자 중에서는 15%만이 점을 미신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. 불교 신자 중에서도 54%가 미신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해 미신이라는 응답(29%)보다 높았다.

점은 근거없는 미신이다 51%, 미신으로 보기 어렵다 30% 최근 5년간 점을 한 번이라도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0%가 ‘미신으로 보기 어렵다’

(단위 : %)

(단위 : %)



질문: 점(占)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어떤 입장에 가까우십니까?

응답자 수: 1,000명

조사기간: 2022. 01. 07 ~ 10
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(hrcopinion.co.kr)

3

신년운세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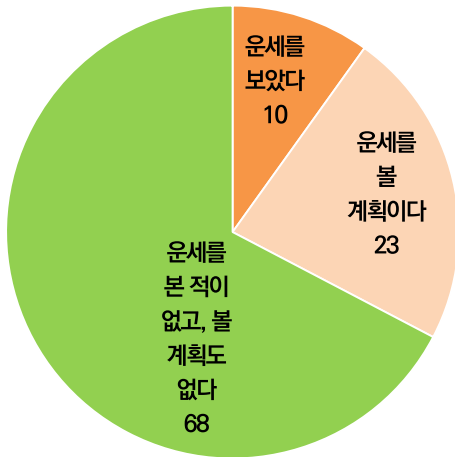
2022년 신년운세를 보았거나 볼 계획이다 32%

무료 어플·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58%로 가장 높아

2022년 신년운세를 이미 보았다는 응답은 10%, 볼 계획이라는 응답은 23%로, 응답자 3명 중 1명(32%)이 신년운세를 봤거나, 볼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 점을 봤거나 볼 예정인 사람들 중에서는 58%가 무료 어플·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겠다고 답해 가장 많았으며, 철학관이나 점집을 직접 방문하겠다는 응답이 32% 뒤를 이었다.

2022년 신년운세를 보았거나 볼 계획이다 32%

(단위 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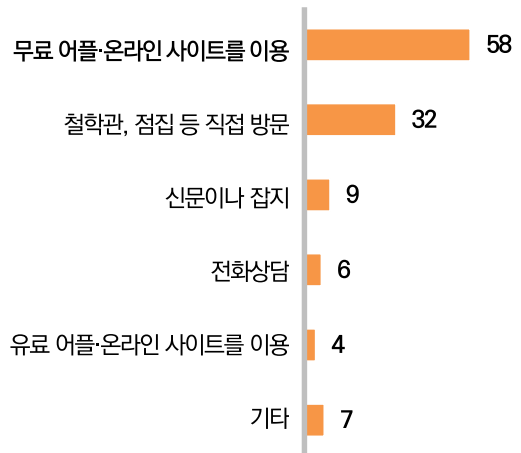
질문: 2022년을 맞아 신년 운세를 보았거나 보실 계획이 있으십니까?

응답자 수: 1,000명

조사기간: 2022. 01. 07 ~ 10

무료 어플·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58%로 가장 높아

(단위 : %)



질문: 어떤 방식으로 운세를 보았거나 보실 계획이 있으니까? 모두 선택해 주세요

비고: 복수응답

응답자 수: 신년운세 보았거나 볼 계획 있다는 응답자 321명

조사기간: 2022. 01. 07 ~ 10
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(hrcopinion.co.kr)

조사개요

| 구분 | 내용 |
|----------|---|
| 모집단 | • 전국의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|
| 표집틀 | •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(21년 12월 기준 약 73만명) |
| 표집방법 | • 지역별, 성별,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|
| 표본크기 | • 1,000명 |
| 표본오차 | •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, 95%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$\pm 3.1\%p$ |
| 조사방법 | • 웹조사(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) |
| 가중치 부여방식 | • 지역별, 성별, 연령별 가중치 부여(셀가중) (2021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) |
| 응답율 | • 조사요청 6,496명, 조사참여 1,283명, 조사완료 1,000명 (요청대비 15.4%, 참여대비 77.9%) |
| 조사일시 | • 2022년 1월 7일 ~ 1월 10일 |
| 조사기관 | • (주)한국리서치(대표이사 노익상) |

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

여론속의

여輿論論

Hankook | Research

